

【논문】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자 이해와 개별주의 실체관*

—『형이상학』 Z 13을 중심으로—

권혁성

【주제분류】 형이상학, 존재론

【주요어】 보편자, 실체, 어떤 이것, 무엇임, 범주론적 실체관, 개별주의적 실체관

【요약문】 본고는 『형이상학』 Z 13에 나타나는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과 여기에서 작용하는 그의 실체관을 그의 형이상학에서 첫째 실체로서 주목되는 본질로서의 형상에 대한 ‘보편주의적’ 해석에 대항하며 재조명하려 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주어진 개별적 실체의 본질로서의 형상은 같은 종의 모든 개별적 실체들에 공통적인 종적 보편자이다. 그에게 있어 하나의 주어진 실체의 본질로서의 형상은 그것“의 실체”라고도 불리는 원리적 의미의 실체인데, Z 13에 따르면, 이것은 주어진 실체에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하나의 주어진 개별적 실체의 본질로서의 형상은 그것에 고유한 개별자이며, 반면 유와 종의 모든 보편자는 이런 원리적 의미의 실체의 지위에서 제외된다. Z 13에서 그는 또한 하나의 주어진 실체의 지위에서도 모든 보편자를 제외시키는데, 그에 따르면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만 이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 본고는 2010년 7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서양고전철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본문의 표현들이 얼마간 다듬어지고 각주와 참고문헌에 약간의 보완이 가해진 완성본이다. 당시 본고에 대해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손윤락 선생님(서울대 서양고전학 협동과정)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그의 『범주론』의 첫째 실체 이해에 연속되는 것으로서 “어떤 이것”이라고 불리는 개별자만이 단적으로 근본적인 실체로서 엄밀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체라는 그의 실체론 전체의 근간논제를 대변한다. 따라서 Z 13에서 그는 모든 보편자를 이런 엄밀하고 궁극적인 의미의 실체의 지위로부터 제외시키는데, 이것은 그러나 보편자에게 예컨대 Z 13에 선행하는 장들 같은 다른 곳에서 범주론적 실체관의 다른 한 견지에서 인정되는 ‘무엇임’이라는 의미의 실체의 지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그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그런데 Z 13의 논의의 귀결로서 개별적 실체의 정의 불가능성 문제에 직면한다. 그에 따르면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견지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 Z 13에는 그 해결 방법이 설명되지 않으나, 다른 곳에 나타나는 그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 실체는 자신의 종적 종체성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그 본래의 존재론적 기반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견지에서도 합당한 기반을 갖는 그의 실체론 전체의 근간논제로서 조망된다.

들어가는 말

본고는 『형이상학』 Z 13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논의와 여기에서 작동하는 그의 실체관을 그의 실체론에 대한 한 가지 오랜 영향력 있는 해석에 대항하여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형이상학』 Z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에 의해 기반이 주어진 자신의 실체연구를 본격적으로 심화시킨다. 여기에서 그의 주요과제는 이미 『범주론』에 따라 실체로 간주되는 어떤 사물에 대해 그것의 존재와 인식의 원리로서 그것“의 실체”라고 불릴 원리적 의미의 실체를 설명하는 일이다. 이렇게 어떤 주어진 실체에 있어 그것의 원리를 이루는 원리적 의미의 실체에 대한 설명을 주요과제로 갖는 그의 실체연구는 『형이상학』 Z 3에서 사람들이 실체를 설명하는 주요한 네 가지 방식을 대변하는 이른바 “실체의 네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본질’(to ti ēn einai), ‘보편자’(to katholou), ‘유’(to genos), ‘기체’(to hypokeimenon)가 그것들이다.¹⁾ 『형이상학』 Z에서 수행되는 그의 실체연구의 대부분은 이 네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당한 실체설명을 찾는 일에 바쳐지거니와, 이 과정에서 그는 네 후보들 중 ‘본질’을 저 원리적 의미의 실체에 대한 합당한 설명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주어진 실체의 형상과 동일시하고 또한 새로이 “첫째 실체”라고 부른다. 반면 그것들 중 ‘유’를 포함한 ‘보편자’는 그에게서 실체설명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비판되는데, 이는 이제 “첫째 실체”라고 불리는 본질로서의 형상이 경우에 따라, 플라톤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주어진 실체에 대한 보편자와 혼동되는 것을 막으려는 동기에 의거한다.²⁾ 이에 그는 Z 13에서 유를 포함한 보편자를 그것의 실체로서의 지위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거니와, 이를 통해 그는 무엇보다 우선 어떤 주어진 실체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주어진 실체의 본질로서의 형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에 따르면, 주어진 실체의 본질로서의 형상은 오히려 그것에 고유한 어떤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그곳에서 또한 모든 보편자가 어떤 주어진 실체로서 인정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하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이것”(tode ti)이라고 불리는 개별자만이 단적으로 근본적인 실재(fundamental reality)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주어진 실체로 인정된다. 이렇게 그는 Z 13에서 모든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범주론』에서의 ‘첫째 실체’ 이해로부터 지속되는 ‘개별주의적 실체관’을 『형이상학』 Z에서 수행되는 자신의 실체연구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생각으로 심화시킨다. 말하자면, 그는 그곳에서 오직 개별자만을 하나의 주어진 실체로 인정하면서 그것‘의 실체’로서도 오직 그것에 고유하게 귀속되는 개별자만을 인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그곳에서 모든 보편자에 어떤 주어진 실체의 지위도 어떤 주어진 실체‘의 실체’의 지위

1) 1028b 33ff.

2) Z 13 1038b 6-8, Z 16 1040b 27-30.

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주요논지로 보여주는 Z 13의 논의는 플라톤주의와 구별되는 보편자의 비실체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실체론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그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을 심화된 형태로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의 실체론의 기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별한 주목을 요구한다.

Z 13에 대한 본고의 이러한 이해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본질로서의 형상에 대한 이른바 “보편주의적” 해석의 대변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론을 예상해야 한다. 이 해석은 이미 고대 후기에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견해인데, 그것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하나의 주어진 개별적 실체의 본질로서의 형상은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모든 개별적 실체들에도 공통적인 종적 보편자이다.³⁾ 이 생각에 따라 보편주의적 해석의 대변자들은 Z 13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가 종적 보편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유적 보편자와 플라톤의 이데아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의미의 비판임을 다양한 해석적 노력들을 통해 보이려 한다.⁴⁾ 이러한 그들의 해석을 위한 지지기반으로서 종종 Z 12에서 표명된, 유적 보편자는 자신에 속하는 종들 이외의 별도의 실체가 아니라는⁵⁾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주목되곤 하며,⁶⁾ 또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겠지만, Z 13 내부에도 이와 같은 해석적 노력들을 허용하는 듯이 보이는 논의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⁷⁾ 그럼에도 Z 13의 논의과정 전체를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에 충실하면서 주의 깊게 따라가다 보면, 그곳의 논의는 보편주의적 해석의 대변자들이 아니라 본고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보편자의

3) 이 해석의 대변자들로서는 Hartmann (1957), Woods (1968, 1991), Code (1984), Furth (1988), Lear (1988), Loux (1979, 1991), Rapp (1996)을 들 수 있다.

4) Woods 1968, pp. 215-238과 1991, pp. 41-56; Lear 1988, pp. 284-291; Furth 1988, pp. 247-249; Rapp 1996, pp. 157-191.

5) Z 12, 1038a 5ff.

6) 예컨대 Rapp 1996, pp. 166ff.

7) 1038b 16-34.

실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앞서 언급된 종류의 철저한 비판과 동시에 개별주의적 실체관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일관된 생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그곳의 주요논지 중에서, 그가 그곳에서 오직 개별자만을 주어진 실체로 인정한다는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하나의 주어진 개별적 실체의 본질로서의 형상이 그것에 고유하게 귀속되는 개별자라는 견해를 내세우는 이른바 “개별주의적” 해석의 대변자들⁸⁾ 사이에서도 소수에게만 주목된다.⁹⁾ 이에 본고는 이 사실에 대한 별도의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앞서 언급된 보편주의적 해석에 대항하여 본고에 의해 소개된 Z 13의 주요 논지를 그곳의 논의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려 한다. 이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과제이다.

이 과정에 본고는 또한 Z 13의 논의로부터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연구 전체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려 한다. 그 하나는 Z 13의 개별주의적 실체관과 Z의 선행하는 장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여주는 실체관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Z의 4-6장과 10-11장에서 수행된 ‘본질’에 대한 논의

8) Albritton (1957), Tugendhat (1958), Lloyd (1981), Frede (1987 a & b), Frede-Patzig (1988), Irwin (1988), Witt (1989). 국내의 학자로는 조대호 (2007 a) 를 들 수 있다.

9) Frede와 Patzig: 특히 Frede 1987 b, p. 78; Frede-Patzig 1988, Vol. II, pp. 241, 246을 보라. 여기에서 Frede와 Patzig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Z 13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을 주목하고 있다: Z 13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범주론』에서는 아직 둘째 실체로 인정되던 유와 종의 보편자들을 실체의 범주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론으로부터 제외시킨다. 본고는 이와 같은 그들의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Z 13에 선행하는 여러 장들에서 본질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는 가운데 개별자 뿐만 아니라 유와 종의 보편자들을 실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존재론 속에 두고 있는데 (아래의 각주 10과 각주 36 참조), 그가 Z 13에서 이것들을 실체의 범주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론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면, 이것이 선행하는 장들에서의 그의 실체 이해에 대해 갖는 차이가 일종의 ‘모순’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Z 13의 개별주의적 실체관과 선행하는 장들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관과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할 다른 길을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들에서는 유와 종의 단계에 있는 모든 보편자들이 개별자와 더불어 실체로 인정되고 있는데,¹⁰⁾ 본고의 이해에 따라 그 주요논지에 관해 소개된 Z 13의 논의는 선행하는 장들에서의 이러한 그의 실체이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¹¹⁾ 물론 이러한 인상은 Z에서의 그의 논의과정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것을 물리치고 그의 실체연구 전체를 일관적으로 이해할 길은 여전히 열려있거니와, 본고는 이 길이 어떤 것인지를 Z 13에 대한 논의 중 적절한 곳에서 설명하려 한다. 다른 한편으로 Z 13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그곳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에 의해 거론되듯이, 실체의 정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것은 Z 13의 논의로부터 뿐만 아니라 Z 15를 통해 상세히 개진되는 그의 한 가지 근간논제, 말하자면 하나의 개별자는 그 개별자 자체에 고유한 정의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불가피한 어려움으로서 수반된다. 이렇게 하여 실체가 정의될 수 없다면, 이는 존재자들에 대한 학문적 인식의 불가능성이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는 다행히도 이 문제가 어떤 견지에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논의를 마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한에서 Z 13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그 존립에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충분한 조망 속에 놓여있다. 본고는 그것의 이러한 불충분한 조망을 보완하는 일을 마지막 과제로서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형이상학』 Z 외부의 몇몇 연관 텍스트들을 함께 고려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된 두 과제들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된 일차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본고는 지금부터 Z 13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려 한다.

10) 특히 Z 4, 1030a 10-13, Z 11, 1037a 5-10, 26-33을 보라.

11) 이러한 인상에 따라 『형이상학』 Z에서 수행된 실체연구 전체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한 입장을 일종의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해석자들이 있다: Leshner 1971; Sykes 1975; Graham 1987, Ch. 8-9.

I. 첫 두 논의들: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 부정을 위한 기본 논거들

Z 13의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Z 3에서 거론된 ‘실체의 후보들’에 대한 일련의 검토의 일부로서 수행된다. Z 13의 서두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행하는 장들에서 기체와 본질에 대한 논의들이 수행되었기에, 이제 남아 있는 실체의 후보로서 유를 포함한 보편자에 대한 검토로 이행할 것을 선포한다. 이에 이어 그는 실체의 후보로서의 보편자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어떤 이들에게 보편자는 최우선적 의미에서 원인(aition)이자 원리(archē)로 여겨지는 반면, 그가 보기에는 보편자들 중 어떤 것도 실체일 수 없다.¹²⁾ 여기에서 “어떤 이들”이란 구체적으로 플라톤주의자들을 가리키는데,¹³⁾ 이에 따라 그는 지금 플라톤주의자들에게서 보편자로서의 이데아가 이 세계의 감각 가능한 사물들의 원리이자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실체로 간주되는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 지금의 보편자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취지를 갖는 그의 보편자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뒤따르는 곳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본격화되는데, 그것들 중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논의들은 첫 두 논의들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의 보편자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논지들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것들 중 첫 번째 논의는 보편자가 주어진 실체의 원리라는 의미에서 실체로 인정될 가능성을 부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의이며, 두 번째 논의는 보편자가 스스

12) 1038b 6ff.

13) Ross 1953, Vol. 2, p. 209, Frede-Patzig 1988, Vol. 2, p. 244 참조. 『형이상학』 A 6, 987b 1-14도 참조—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은 플라톤의 견해를 소개한다: 이데아는 항상 변화 가운데 놓인 감각적 사물들과 달리 정의와 학문의 참된 대상을 이루는 보편자로서 동시에 감각적 사물들의 존재의 원리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그것을 분유함으로써 그것과 같은 이름을 갖는 감각적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로 어떤 하나의 주어진 실체로 인정될 가능성을 부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의이다. 우선 첫 번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각각의 사물에 고유하고 다른 사물에는 귀속되지 않는 것이 각각의 사물의 실체이나, 보편자는 공통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에 따라 다수의 사물들에 귀속되는 것이 보편자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의 실체이겠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의 실체이거나 아무것의 실체도 아닐 터인데, 그것이 모든 것의 실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 사물의 실체라면, 다른 사물들 또한 이 사물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실체가 [동일한] 하나이고 본질이 [동일한] 하나인 사물들은 또한 그것들 스스로가 [동일한] 하나이기 때문이다.¹⁴⁾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무언가가 한 사물의 실체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는데, 이는 그에 따르면 그것이 그 사물에 고유하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이어 그는 보편자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보편자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설명하는데, 보편자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다수의 사물들에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두 설명을 통해 이미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직접적인 귀결로서 밝혀진다: 보편자는 자신이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바의 사물들 중 어느 하나 혹은 몇몇만의 실체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어느 하나 혹은 몇몇에만 고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이 분명해진 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가 그 어떤 사물의 실체일 수 있는지를 새로이 숙고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남아있는 가능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선언적 경우들을 고려한다: (A) 보편자는 자신이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바의 사물들 전체에 고유한 것으로서 그 모든 사물들의 실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B) 본래 오로지 그 모든 사물들에 공통적인 것으로서 그 사물들 중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니다. (A)의 가능성은 즉시 아무 설명 없이 부인된다. 이를 위한 현재 제공되지 않은 설명은 곧 (B)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지지

14) 1038b 9-15.

논변이 주어지는 가운데 함께 주어진다. (B)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지지논변은 귀류논증을 통해 주어지는데, 말하자면 그는 (B)의 가능성의 부정으로서 보편자가 그것이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바의 사물들 중 (최소한) 하나의 실체일 가능성을 가정한다. 서두에 주어진 설명들에 의거하여 현재의 가정에서 보편자가 오직 이 한 사물만의 실체로 간주될 가능성은 이미 배제되어 있음이 분명한 반면, 현재의 가정은 보편자가 본래 자신이 귀속되는 바의 다른 모든 사물들에도 이 한 사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것임에 근거하여 보편자가 이 한 사물을 포함한 그것이 귀속되는 바의 모든 사물들의 실체로 간주될 가능성을 수반한다. 이렇게 현재의 가정은 다시 앞에서 부인된 (A)의 가능성, 즉 보편자가 자신이 귀속되는 바의 모든 사물들의 실체일 가능성을 수반하거나, 이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귀결이 뒤따른다: 모든 사물들이 동일한 하나의 사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동일한 하나의 실체, 즉 동일한 하나의 본질을 갖는 사물들은 또한 그것들 스스로가 동일한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귀결은 본래 앞에서 부인된 (A)의 가능성이 부인되었던 근거였음이 이제 분명한 동시에, 그것은 또한 지금 (B)의 가능성에 대한 선행하는 부정을 반박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결국 (A)의 가능성이 부인되고 (B)의 가능성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논의를 유심히 주목하면, 그 근거에 다음과 같은 기본논제가 놓여있음이 드러난다: 한 사물의 실체는 본래 그 사물이 하나의 단일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근거인 반면,¹⁵⁾ 하나의 보편자가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바의 모든 사물들은 본래 다수의 존재자들인데, 이렇게 본래 다수의 존재자들인 그것들이 어떻게든 하나의 단일한 존재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기본논제에 따라 현재의 논의는 다음의 논점을 핵심 논점으로 보여준다: 하나의 보편자가 자신이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바의 다수의 사물들의 실체라면, 이 다수의 사물들은 이 보

15) Cf. Z 17, 1041b 11-33. Witt 1989, p. 159 또한 참조하라.

편자를 자신들 공통의 존재론적 단일성의 근거로 가짐으로써 하나이자 동일한 사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논의는 보편자가 자신이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바의 다수의 사물들 중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님을 결론으로 주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의 논의는 주어진 다수의 사물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어떤 것은 이 주어진 사물들 중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어진 사물들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현재의 논의는 다만 주어진 다수의 사물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어떤 것이 이 사물들 중 어떤 것의 실체로 가정되는 모든 경우에 타당한 하나의 형식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주어진 다수의 사물들은 Z의 실체연구의 주요관심사에 따라 사실상 실체로 간주되는 사물들인 한에서 현재의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을 이루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만약 여기에서 주어진 다수의 사물들로서의 실체들이 예컨대 ‘이 사람’이나 ‘이 말’과 같이 『범주론』 이래 “어떤 이것”(tode ti)이라고들 불리면서 실체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물들인 개별자들이라면, 현재의 논의는 이렇게 주어진 다수의 사물들로서의 개별적 실체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것에—즉, 이것들의 유 뿐만 아니라 종에도—아무 차별 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의 논의는 주어진 다수의 개별적 실체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유와 종 모두를 이것들 중 그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의 논의가 갖는 이러한 설명적 가능성은 그것에 뒤따르는 두 번째 논의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증되거나, 두 번째 논의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언가가 하나의 주어진 실체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 조건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오직 개별자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짧은 언급을 통해 주어진다: “또한 기체에 대해 술어가 되지 않는 것이 실체라고 일컬어지나, 보편자는 항상 어떤 기체에 대해 술어가 된다.”¹⁶⁾ 이 논의는 이미 Z

3에서 본질, 유, 보편자와 나란히 실체의 후보로 거론된 기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선 다음의 사항들을 주목해야 한다: 1) 그는 Z 3에서 실체의 네 후보를 거론할 때 오직 기체만은 어떤 사물의 실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체로 간주되는 어떤 주어진 사물 자체라는 의미에서 실체의 후보로 언급했다.¹⁷⁾ 2) 이에 뒤따르는 기체에 대한 논의에서 그는 ‘기체임’의 자격이 그 자격을 갖는 어떤 사물을 실체라고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지만, 그는 그럼에도 ‘기체임’의 자격을 실체가 갖는 필요조건으로 간주하여 실체의 기본적 특성이라고 이해한다.¹⁸⁾ 이러한 생각들에 의거하여 그는 방금 인용된 현재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논변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하나의 기체 이기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자신에 대해 술어가 되나 자기 자신은 그 어떤 기체에 대해서도 술어가 되지 않는 것이 실체라고 일컬어지는 반면, 보편자는 바로 이러한 실체의 기본적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실체로 간주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오직 개별자만이 실체로 간주될 수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의 유는 자신에 속하는 모든 종과 모든 개별자에 대해 기체에 대한 술어로서 서술되며, 하나의 종은 자신에 속하는 모든 개별자에 대해 기체에 대한 술어로서 서술되는 반면, 각각의 개별자는, 그것이 스스로 술어가 될 더 이상의 기체가 없기에,¹⁹⁾ 어떤 기체에 대해서도 술어가 되지 않는 것이다.²⁰⁾ 이런 이유

16) 1038b 15-16.

17) 1028b 33ff 참조: “‘실체’라는 말은, 더 많은 의미에서가 아니라면, 주로 네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말하자면 본질과 보편자와 유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각각의 사물의 실체이며, 기체는 이 [네 가지 의미] 중에서 네 번째 것이다. 말하자면 첫째 기체가 실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언급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 보편자, 유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각각의 사물의 실체”라고 불림으로써 어떤 주어진 사물 ‘의 실체’라는 의미에서 실체의 후보로 여겨지나, 기체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그냥 “실체”라고 불림으로써 실체로 간주되는 어떤 주어진 사물 자체라는 의미에서 실체의 후보로 여겨짐을 보여준다.

18) Z 3 1029a 7ff, H 1 1042a 26-31. 권혁성 2009, pp. 47-50 또한 참조.

19) 현재의 논의에서 ‘기체임’의 자격은 실체의 특성인 한에서 언급되고 있기에, 다른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론하는 형상 술어의 기체로서의 질

에서 현재의 논의는 오직 개별자만을 실체로 간주하면서 종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보편자를 실체로 간주되는 사물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수반한다. 이 결과를 위에서 주목된 첫 번째 논의의 결과와 함께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귀결이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개별자들만을 주어진 실체들의 지위에 합당한 것들로 전제하면서 이것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것, 즉 유 뿐만 아니라 종까지를, 이것들 중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닌 것으로 비판한다. 물론 여기에는 위에서 주목된 첫 번째 논의에서 언급된, 각각의 사물의 실체가 가져야 하는 고유성의 조건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에, 현재의 비판은 동시에 그것들의 실체가 그것들 각각에 고유한 개별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자명한 것으로서 전제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지금까지 주목된 두 논의들을 통해 오직 개별자만을 주어진 실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체의 원리로서의 실체라는 두 가지 의미의 실체의 지위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이러한 개별적 실체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유와 종 모두에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실체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II. Z 13 논의의 난맥상과 결론적 논점

본고의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첫 번째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지지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이 있다: 그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 종적 보편자들만을 주어진 실체들의 지위에 합당한 것들로 전제하면서 이것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유적 보편자를 이것들 중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닌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²¹⁾

료는 현재의 논의와 무관한 종류의 기체로서 고려에서 제외된다. 질료는 단적으로 실체의 자격을 갖는 종류의 기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 Θ 7, 1049a 34-36, H 1 1042a 26-28 참조).

20) 『법주론』 2, 1a 21f, 5, 2a 21ff와 36ff 참조.

21) Albritton (1957, p. 705), Furth (1988, pp. 247-248).

이와 같은 해석은 방금 고려된 두 번째 논의에 합당한 견해로 여겨지지 않는 반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 이에 뒤따르는 1038b 16-34에서의 긴 논의부분 전체를 통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방식에 의해 지지될 수도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이 긴 논의부분에서 그는 주어진 실체들의 위치에 “사람”, “말” 등으로 표현되는 종적 보편자들을 전제하고 이것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동물”이라는 유적 보편자를 비롯한 모든 정의적 규정들을 이것들 중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니고 또한 이것들 이외의 다른 어떤 주어진 실체도 아닌 것으로 비판한다. 이와 같은 그의 논의 방식은 적어도 의견상으로는 조금 전까지 수행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의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다소간 의심스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며 첫 번째 논의에 대한 방금 거론된 다른 해석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기여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가 이 긴 논의부분에 바로 뒤따르는 1038b 34ff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유심히 주목하면 다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의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상응하는 논점이 발견된다. 말하자면 이곳에서 그는 선행하는 저 논의부분으로부터 도출되는 연구결과이자 사실상 Z 13에서의 보편자에 대한 논의 전체의 결론적 논점에 해당되는 생각을 개진하는데, 이것을 유심히 주목하면 그가 이제 다시 오직 개별자들만을 주어진 실체들의 지위에 합당한 것들로 인정하면서 이것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것들 중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닌 것으로 비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전체의 논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논의부분들과는 상충되어 보이는 1038b 16-34에서의 그의 논의방식을 가능한 한 다른 논의부분들과 모순 없이 연결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숙고가 Z 13에서의 보편자에 대한 그의 논의 전체를 일관되게 이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방금 언급된 Z 13의 결론적 논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껏 주목된 Z 13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의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상응하는 것을 보여주는지를 앞당겨 확인한 이후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1038b

16-34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방식을 숙고하는 일로 되돌아오려 한다. Z 13, 1038b 34ff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행하는 논의들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적인 생각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논의들에 따라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귀속되는 것들 중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과 공통적 술어들 중 어떤 것도 ‘어떤 이것’(tode ti)이 아니라 ‘그러그러한 것’(toionde)을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여러 어려움들과 더불어 “제3의 인간”이라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여기에서 그는, 우선 첫째로,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를 단적으로 부인하면서, 둘째로, 이에 속하는 하나의 주요 논점으로서 공통적 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것, 즉 보편자가 ‘어떤 이것’이 아니라 ‘그러그러한 것’, 즉 속성의 규정임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는 그의 한 가지 근간논제가 자명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실체는 ‘어떤 이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²²⁾ 그에게서 “어떤 이것”이라고 불리는 실체는, 위에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개별자이거니와, 그것이 또한 오직 개별자로 제한됨을 그는 현재의 결론적 언급 내부에서 분명히 한다. 말하자면 그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두 번째 논점이 부인되는 경우 다른 여러 어려움들과 더불어 “제3의 인간”이라고 불리는 어려움이 생겨남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그에 따르면 이미 본래 ‘어떤 이것’으로서 주어져 있는 하나의 개별자 이외에 그것의 보편적 규정을 또한 ‘어떤 이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생겨나는 어려움이다.²³⁾ 구체적으로 말해, 만약 우리가 각각 ‘어떤 이것’

22)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근간논제에 대해서는, 권혁성 2009, pp. 62-71을 참조하라.

23) 『소피스트적 논박』 178b 36-179a10. 아리스토텔레스가 “제3의 인간”이라고 부르는 어려움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통 플라톤의 대화편 『파르메니데스』 132a-133a에서 제시되는 모델에 따라 이해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인간’이 아니라 ‘큼’(to mega)이 논의를 위한 사례로서 사용된다. (Ross 1953, Vol. 1, pp. 194-196과 Bostock 1994, p. 199를 참조하라).

으로서 주어져 있는 다수의 개별적 인간들을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통해 규정하면서 그것들 이외에도 이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어떤 이것’으로 가정한다면, 이미 주어져 있는 개별적 인간들과 함께 이 인간이라는 보편자 또한 또 하나의 개별적 인간으로서 주어지게 되기에, 이렇게 주어진 모든 개별적 인간들은 다시 다른 하나의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보편적 규정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처음의 가정이 계속되는 한 이미 언급된 것과 같은 결과가 뒤따르며, 같은 가정 아래에서 같은 결과가 무한히 뒤따를 것이다. 이 경우 주어진 개별적 인간들이 보편적 규정을 얻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오직 이미 애초부터 각각 본래 ‘어떤 이것’으로서 주어져 있던 본래의 개별적 인간들만을 각각 ‘어떤 이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3의 인간”이라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오직 본래 ‘어떤 이것’으로서 주어져 있는 본래의 개별자만을 ‘어떤 이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에서 인용된 결론적 언급의 두 번째 논점에서 오직 개별자만을 ‘어떤 이것’으로서의 실체라고 간주하는 한에서 모든 보편자를 ‘어떤 이것’이 아닌 ‘그러그러한 것’, 즉 속성의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여기에서 오직 개별자만을 주어진 실체의 지위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앞서 제시된 결론적 언급의 첫 번째 논점을 통해 이미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를 단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선행하는 모든 논의들을 통해 그는 보편자에 대해 주어진 실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체의 실체라는 의미에서의 실체의 지위를 부인하는 논변들을 제시해 왔다.²⁵⁾ 그러므로 이것들로부터 도출된 연구결과의 표현으로서 현재 고려되는 결론적 언급의 이 첫 번째 논점을 통해 그

24) 이것을 Bostock(1994, p. 200)은 현재 고려되는 결론적 언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가운데 주목한다: “‘제3의 인간’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모든 보편자에 미치는 문제이다.”

25) 이 점이 아직 상론되지 않은 1038b 16-34의 긴 논의부분에도 해당되는 것임은 아래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는 보편자에 대해 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실체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이것이 개별자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유와 종의 모든 보편자에 적용됨을 지금껏 주목된 두 번째 논점을 통해 시사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렇게 하여 그는 이 결론적 언급에서 그 두 번째 논점에 따라 모든 보편자를 제외하고 오직 개별자만을 주어진 실체의 지위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 첫 번째 논점을 통해 이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것에 방금 언급된 두 가지 의미에서의 실체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결론적 입장은 이미 Z 13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의들을 통해 그 기본적인 윤곽을 얻었거니와, 이러한 전체에 비추어 보아 Z 13의 두 번째 논의와 결론적 언급 사이의 1038b 16-34에서 그가 보여주는 위에서 언급된 논의방식은 그것의 표면적 인상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껏 주목된 이 전체의 흐름과 일관되게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1038b 16-34의 논의과정을 살펴보자.

Ⅲ. 세 번째 논의: 유를 비롯한 모든 정의적 규정들의 실체로서의 지위 비판

1038b 16-34의 논의는 부분적으로 모호한 곳이 있음에도 그 흐름에 비추어 보아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1038b 16-18의 도입의 언급과 1038b 30-34의 총괄의 언급을 포함하여 그 사이에 오는 1038b 18-23, 23-29, 29-30의 세 논의들을 통해 주어진 종적 실체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유를 비롯한 모든 정의적 규정이 이것들 중의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니고 또한 다른 어떤 주어진 실체도 아님을 보여준다. 이 모든 논의과정은 1038b 16-18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에 선행하는 두 논의들, 즉 위에서 주목된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의들에 대항하여 보편자가 실체임을 주장하는 누군가에 의해 일종의 반론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가정을 앞으로의 비판을 위해 소개함으로써 시작된다. 보편자가 물론 본질과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실체의 실체일 수는 없으나, 그것은 이 본질 속에 존재한다; 예컨대 동물이 사람과 말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²⁶⁾ 이렇게 소개된 가정 아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를 지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변론을 고려하고 있다: 보편자는 주어진 실체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본질 속에 이 본질의 구성요소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이 본질의 존재의 원리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 본질의 실체이다. 한 주어진 실체에 있어 그것의 본질은 그것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실질적 관계항으로서 해당되는 유와 종차라는 보편자들로 이루어지는 정의에 의해 규정되는 대상이기에, 현재의 변론은 이러한 규정관계에 의거하여 주어진 실체의 본질을 새로이 논의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이에 대한 정의적 보편자에 이 본질의 실체라는 지위를 인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변론은 애초에 주어진 실체가 아닌 그것의 본질을 새로이 주어진 실체의 위치에 두고²⁷⁾ 유를 비롯한 정의적 보편자가 이것의 구성요소로서 이것의 존재의 원리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것의 실체임을 주장하는 변론이다. 여기에서 주어진 실체의 위치에 놓인 본질과 그 구성 요소로서의 보편자는 구체적으로 각각 종적 본질들인 사람, 말과 이 속에 존재한다고 말해지는 유로서의 동물로 예시되어 있다. 이 변론에 대한 반박의 논의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뒤따르는 곳에서 전개하는데, 이 모든 논의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이어 제시되는 총괄의 언급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음의 전략에 따른다: 이 변론이 주장하는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를 비판하기 위해 그는 이 변론이 주어진 실체의 위치에 놓은 종적 본질들을 그것들의 실체

26) 이 가정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문 속에서 문제로서 제기된다: “그러나 그것이 [즉, 보편자가] 본질과 같은 방식으로 실체일 수는 없으나, 마치 동물이 사람과 말 안에 있듯이, 본질 안에 있는 것인가?”

27)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하나의 주어진 실체의 원리로서의 본질은 그것 자신이 이미 또한 하나의 실체여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주어진 실체의 원리는 마땅히 주어진 실체에 우선하는 지위의 존재자여야 하기에 최소한 하나의 실체여야 한다. 『형이상학』 M 10 1086b 37ff 참조.

로서의 지위에 대한 아무 비판 없이 논의의 기초에 전제하고, 오직 그것들에 대한 정의적 보편자인 유를 비롯한 모든 정의적 규정이 이 변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체의 자격을 갖지 못함을 드러내 보이는 데에 집중한다.

1038b 18-23에 제시되는 첫 번째 논의에서 그는 선행하는 1038b 16-18에서 고려된 변론에 따라 종적 실체들을 논의의 기초에 전제하고,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Z 13의 첫 번째 논의(1038b 9-15)를 통해 제시된 ‘원리로서의 실체의 고유성’에 의거한 논변에 다시 호소함으로써 유적 보편자로서의 동물이 그것들 중 어떤 것의 실체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²⁸⁾ 1038b 23-29에서 제시되는 두 번째 논의에서 그는 주어진 실체들 각각을 새로이 “어떤 이것”이라고 특징화하는 가운데, 유적 보편자는 근본적으로 ‘어떤 이것’이 아니라 ‘그러그러한 것’(poion)으로서 주어진 실체의 속성의 규정이며, 따라서 ‘어떤 이것’으로서의 실체를 구성하는 존재의 원리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²⁹⁾ 1038b 29-30에서의 세 번째 논의에서 그는 “그것은 소크라테스 속에 [이것의] 실체로서 존재할 것인데, 따라서 그것은 두 사물의 실체일 것이다”라는 논지를 헤아리기 어려운 짧은 논변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상론은 피하기로 한다.³⁰⁾ 1038b 30-34에서 제공되는 이 세 논

28) 이렇게 이해된 첫 번째 논의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 [즉, 보편자] 에 대한 어떤 정식(logos)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체 안에 있는 것들 모두에 대해 어떤 정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신이 내속하는 바로 그 사람의 실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의 실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결과가 다시 뒤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컨대 동물은, 어떤 종 안에 그것이 고유한 것으로서 속하면서 그것의 실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29) 이렇게 이해된 두 번째 논의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더욱이 [어떤] 이것’ 이자 실체인 것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실체나 ‘어떤 이것’이 아니라 ‘그러그러한 것’으로 (ek poion)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실체가 아닌 ‘그러그러한 것’이 실체, 즉 [어떤] 이것’에 우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상태들(pathē)은 정식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생성에 있어서도 실체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상태들이 실체에 우선한다면] 그것들은 또한 분리되어 존재하기도 하겠기 때문이다.”

의들에 대한 총괄의 언급³¹⁾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사람과 이러한 방식으로 언급되는 모든 것들이 실체라면”이라는 말을 통해, 선행하는 논의들에서처럼, 1038b 16-18에서 고려된 변론을 통해 이미 주어진 실체의 위치에 놓인 종적 존재자들을 그것들의 실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아무런 비판 없이 논의의 기초에 전제한다. 이 전제 아래에서 그는 주어진 종적 실체들에 대해 정의적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유를 비롯한 모든 정의적 규정이 그것들의 실체로도 또한 다른 어떤 주어진 실체로도 인정될 수 없음을 선행하는 모든 논의에 따른 귀결로서 주장한다.

지금껏 고려된 1038b 16-34 전체를 통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방식은 주어진 실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 외견상으로는 확실히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선행하는 두 논의들에서의 그의 기본입장과 현재 고려된 논의부분에 뒤따르는 결론적 언급에서 확인되는 그의 최종입장에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³²⁾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그의

30) 이 짧은 논변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의 1038b 16-18에서 주목된 변론에 따라 사람들이 유적 보편자인 동물을 현재 주어진 종적 실체들의 한 사례인 사람을 구성하는 존재의 원리라는 의미에서 그것의 실체로 가정한다면, 이러한 가정은 사실상 하나의 주어진 대상에 대한 정의적 규정을 동시에 그 대상을 구성하는 존재의 원리로 여김으로써 그것의 실체로 간주하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자면, 유적 보편자인 동물은 개별적 사람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정의적 규정으로서 진술되기에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소크라테스의 실체이기도 하다. 그러면 유적 보편자인 동물은 사람과 소크라테스 양자의 실체가 되는데, 이는 ‘원리로서의 실체의 고유성’에 의거한 논변에 따르면 불합리하다.

31) 이것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사람과 이러한 방식으로 언급되는 모든 것들이 실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귀결이 뒤따른다: [그것들에 대한] 정식에 속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그것들 중] 어떤 것의 실체가 아니며, 그것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 안에 있지 않다. 내 말의 뜻은 어떤 동물이 특정한 종들에 더하여 (para ta tina) 존재할 수 없고, 정식들 안에 있는 것들 중 다른 어떤 것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32)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Bostock(1994, p. 198, 200)은 1038b 16-34의 논의부분과 그에 뒤따르는 1038b 34ff의 결론적 언급 사이의 비일관성을 주목한다.

비판적 논의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일관적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러한 상충되는 인상은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하며, 따라서 1038b 16-34의 논의부분 전체는 가능한 한 그것에 선행하고 뒤따르는 논의부분들 모두와 모순 없이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그 논의부분에 직접 뒤따르는 1038b 34ff에서의 결론적 언급이, 위에서 이야기되었듯이, 바로 그 논의부분으로부터 도출되는 연구결과로서 제시되어 있기에,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 논의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그것에 선행하고 뒤따르는 논의부분들과 모순 없이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에 최대한 충실하는 한에서 이를 위해 가능한 자연스러운 길은 오직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1038b 16-34의 논의부분 전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의 도입부인 1038b 16-18에서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를 지지하기 위해 가능한 일종의 ‘플라톤적’ 변론을 고려하며, 이곳에서 고려된 ‘플라톤적’ 변론에 따라 이제 주어진 실체의 위치에 놓인 종적 존재자들을 이데아라는 ‘플라톤적’ 실체 모델에 따라 뒤따르는 논의의 기초에 전제함으로써, 그것들을 사실상 자신에게서 “어떤 이것”이라고 불리는 개별자의 실체 모델에 부합하게 다룰 수 있었다. 말하자면 1038b 16-18에서 고려된 변론은 사실상 유라는 정의적 규정을 그 아래에 포괄됨으로써 정의되는 대상들인 종적 존재자들을 구성하는 존재의 원리로 간주하는 가운데 그것들의 실체로 가정하는 데에 존립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존재자들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위한 인식의 원리를 동시에 이것들을 구성하는 존재의 원리로 간주하는 플라톤주의의 일반적 견해에 따른 것이다.³³⁾ 이런 의미에서 1038b 16-18에서 고려된 변론은 ‘플라톤적’ 변론이며, 이러한 ‘플라톤적’ 변론에 따라 이제 주어진 실체의 위치에 놓인 종적 존재자들은 1038b 34까

33) 이미 위에서 각주 13를 통해 언급된 바의 『형이상학』 A 6, 987b 1-14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소개된 플라톤의 견해를 참조하라; 사실상 『형이상학』 Z 14에서는 유로서의 ‘동물’과 종차들로서의 ‘두발 달린’과 ‘네발 달린’이 종들로서의 ‘사람’과 ‘말’의 존재론적 구성 원리들이라는 플라톤적 견해가 비판되고 있거니와, 이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선행하는 Z 13에서의 자신의 논의의 결과로서 뒤따르는 것이다.

지의 뒤따르는 모든 곳에서 이데아라는 ‘플라톤적’ 실체 모델에 따라 논의의 기초에 전제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에게서 “어떤 이것”이라고 불리는 개별자의 실체 모델에 부합하게 다루어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항상 보편자인 동시에 개별자이며,³⁴⁾ 또한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실체의 사례로 고려하는 경우 “개별자” 혹은 “어떤 이것”이라고 부른다.³⁵⁾ 이렇게 하여 그는 1038b 34까지의 모든 곳에서 1038b 16-18에서 고려된 변론에 따라 주어진 실체의 위치에 놓인 종적 존재자들을 그것들이 사실상 플라톤의 이데아들로서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이것”이라고 불리는 개별자들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인 한에서 논의의 기초에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유적 보편자를 비롯한 모든 정의적 규정을 그것들의 실체도 아니고 또한 다른 어떤 주어진 실체도 아닌 것으로 비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결국 1038b 16-34의 논의 부분 전체에서 그것에 선행하고 뒤따르는 다른 논의 부분들과 일관되게 사실상 개별자들을 주어진 실체들로 전제하면서 이것들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것들의 실체도 아니고 또한 다른 어떤 주어진 실체도 아닌 것으로 비판한다.

IV. Z 13의 개별주의적 실체관과 선행하는 장들의 실체관

이 논의의 직접적인 귀결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에서 앞당겨 주목된 1038b 34ff에서의 결론적 논지를 제시하는데, 위에서 주목되었듯이 여기에서 그는 오직 개별자만을 주어진 실체로서 인정하면서 이것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것에 이것의 실체의 지위와 주어진 실체의 지위 양자를 부인하는 논제를 내세운다. 여기에는 또

34) 『형이상학』 M 9, 1086a 32-b 13.

35) Z 14 1039a 24ff, Z 15 1040a 8f. Cf. Z 16 1040b 27ff.

한 이미 Z 13의 첫 번째 논의 이래 지속적으로 작용하던 ‘원리로서의 실체의 고유성’에 따른 논변에 의거하여 주어진 개별적 실체는 그것에 고유한 개별적인 것을 그것의 실체로 갖는다는 것이 이미 자명한 것으로서 인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Z 13을 통해 정립된 보편자에 대한 비판 논제에서 오직 개별자만을 주어진 실체의 지위와 이러한 실체의 실체의 지위 양자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개별주의적” 실체관을 대변한다. 이것은 그런데 『형이상학』 Z의 선행하는 장들에서 그가 갖고 있던 실체관과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선행하는 장들에서 수행된 본질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 그는 개별자만이 아니라 유와 종을 이루는 보편자 또한 실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³⁶⁾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그곳에서의 이러한 인정은 이제 Z 13에서 정립된 비판 논제에 따라 철회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36) 특히 Z 4, 1030a 10-13, Z 11, 1037a 5-10, 26-33을 보라. 1030a 10-13: “그러한 것들 [첫 번째 지위의 것들: 즉, 실체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 서술되는 방식으로 일컬어지지 않는 것들이다. 따라서 한 유의 종들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본질을 갖지 않을 것이고, 오직 이 종들만이 본질을 가질 것이다.”; 1037a 5-10: “분명히 영혼은 첫째 실체이며, 신체는 질료이다; 사람이나 동물은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된 양자의 복합체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코리스코스의 경우, 만약 소크라테스의 영혼 또한 소크라테스라고 불린다면, 그들은 이중적 존재자들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영혼으로 이해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복합체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 영혼과 이 신체가 그렇게 불린다면, 개별자는 보편자와 같은 사정에 있다.”; 1037a 26-33: “이것 [복합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식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없다. 말하자면 질료와 함께 고려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정식이 없고 (왜냐하면 질료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첫째 실체에 따라서는 정식이 있는데, 예컨대 사람의 경우 영혼에 대한 정식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 실체는 내재적 형상이거니와, 그것과 질료로, 사람들이 말하듯이, 복합실체가 이루어진다. [...] 따라서 복합실체에는, 예컨대 들창코나 칼리아스에는, 질료 또한 함유되어 있을 것이다.” 이 구절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 이외에도 유와 종의 보편자의 단계에서 주어진 실체를 고려하고 있으며, Z 11의 두 구절에서는 주어진 실체에 그것의 실체로서 귀속될 그것의 본질로서의 형상 또한 개별자와 보편자의 양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다. (특히 1037a 5-10을 보라.)

이러한 인상은 경우에 따라 『형이상학』 Z의 실체연구 전체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내적 모순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순의 인상은 사실상 합당한 근거에 따라 부인될 수 있거니와, Z 13에서 정립된 비판 논제가 선행하는 장들에서의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 인정에 상충되는 조치가 아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선행하는 장들과 Z 13에서 각각 보편자를 주어진 실체로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주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여질 수 있다.³⁷⁾

Z 13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을 포함한 모든 보편자를 엄밀히 말해 ‘어떤 이것’으로서의 실체의 지위로부터 제외시켰다. ‘어떤 이것’으로서의 실체의 지위는 그의 『범주론』 이래로 『형이상학』에서도 하나의 개별자가 일체의 부수적(kata symbebēkos) 존재자들의 기체를 이루는 특정한 사물로서 첫 번째 지위를 갖는 무조건적 존재자라고 간주되는 한에서 그것에 부여되는 단적으로 근본적인 실재(fundamental reality)라는 의미의 실체의 지위이거니와,³⁸⁾ 바로 이것을 Z 13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보편자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그가 선행하는 장들에서 보편자에 인정되던 종류의 실체의 지위로부터 보편자를 제외시킨 것으로 여겨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장들에서 보편자는—그것이 동시에 ‘어떤 이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37) 선행하는 장들에서 보편자가 또한 주어진 실체의 실체의 지위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Z 13의 논의와의 대조에 따른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Z 13의 ‘원리로서의 실체의 고유성’에 따른 논변과 일관되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Z 6에서 개진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일성 논제’에 의해 확립되는데, 이 논제에 따르면 하나의 주어진 실체와 그것의 본질 양자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들로서 하나이자 동일한 존재자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의 주어진 실체에 대해 보편자의 지위에 있는 어떤 것이 주어진 실체의 본질로 가정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되는 경우 같은 보편자를 공유하는 다른 모든 실체들 또한 이 가정에 따라 이 보편자를 그것들 공통의 본질로서 공유하면서 이것과 하나이자 동일한 존재자를 이루게 되기에, 같은 보편자를 공유하는 모든 실체들이 하나이자 동일한 존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유사한 해석으로서 Irwin 1988, p. 260을 참조하라. 이 시사점을 포함하여 Z 6의 동일성 논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권혁성 2010 pp. 65-73을 보라.

38) 특히 『범주론』 5, 2b 3-6, 『형이상학』 Z 1, 1028a 20-31 참조.

는 Z 13과 모순되는 그 어떤 주장도 내세워짐 없이—사실상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범주론적 의미에서 실체로 간주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주어진 개별적 실체에 대해 이것의 보편적 종류의 규정을 이루는 ‘무엇임’(ti esti)으로서 존재자들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차원에 존립하는 실체이다. 이는 Z 1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주목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는 Z 1에서 Z의 뒤따르는 자신의 실체연구 전체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으로서 존재자들에 대한 범주론적 구분과 이에 따른 실체관을 제시한다.³⁹⁾ 그곳에서 그는 실체를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와 ‘무엇임’으로서의 종류의 보편자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일체의 부수적 존재자들의 기체를 이루는 특정한 사물로서 첫 번째 지위를 갖는 “무조건적 존재자”(on haplōs)라는 점에서 실체로 간주하며, 후자를 이런 실체의 보편적 종류의 정체성 규정이라는 점에서 실체로 인정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와 ‘무엇임’으로서의 종류의 보편자는 각각 실체범주에 속하는 두 부류인데, 전자는 일체의 부수적 존재자들의 기체에 놓인 특정한 사물로서 모든 의존적 존재자들의 존재기반을 이루는 무조건적인 존재자로 간주되는 한에서 단적으로 근본적인 실체라는 의미에서 실체로 간주되며, 후자는 이러한 실체의 보편적 정체성의 규정으로서 그것에 대한 정의의 차원에서의 상응자로 간주되는 한에서 존재자들에 대한 정의의 차원에 존립하는 실체로 여겨진다. 이것은 이미 개별자를 “어떤 이것”이라고 부르면서 첫째 실체라고 설명하고 그것의 종과 유를 “무엇임”이라고 부르면서 둘째 실체라고 설명하는 그의 『범주론』에서의 이중적 실체관과 연속되는 그의 근간논제이거니와,⁴⁰⁾ 이렇게 『범주론』으로부터 지속되는 Z 1의 이중적 실체관을 전제로 하여 그는 Z 13에 선행하는 장들에서 개별자를 ‘어떤 이것’으로서의 실체의 지위에 합당하다고 간주함과 동시에 보편자를 ‘무엇임’으로서의 실체의 지위에 합당하다고 간주한 것으로

39) 『형이상학』 Z 1, 1028a 10-31.

40) 본고에 의해 현재 주목되는 『형이상학』 Z 1의 범주론적 실체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권혁성 2010 pp. 59-62를 참조하라.

보인다. 따라서 Z 13에서 그가 모든 보편자를 ‘어떤 이것’으로서의 실체의 지위로부터 제외시킨 것은 그것을 선행하는 장들에서 그것에 인정되던 종류의 실체로서의 지위로부터 제외시킨 것이라고 간주되기 어렵다.

사실상 이 조처는 선행하는 장들에서의 그의 실체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는 아직 분명해지지 않은 그의 실체관에 있어서의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분명히 하는 데에 기여한다. 말하자면 그는 선행하는 장들에서 범주론적 실체관에 따라 ‘어떤 이것’과 ‘무엇임’의 두 가지 의미에서 개별자 뿐만 아니라 보편자도 실체로 간주했으나, Z 13에 이르러 새로이 오직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만이 단적으로 근본적인 실체로서 엄밀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체의 지위를 가지며 바로 이러한 엄밀하고 궁극적인 의미의 실체의 지위로부터 모든 보편자가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그가 이미 『범주론』에서 개별자를 여타의 모든 존재자들의 기체를 이루는 단적으로 근본적인 실체로서 “첫째 실체”라고 불렀을 때 그가 갖고 있던 개별주의적 실체관의 연속선상에 있다. 『형이상학』의 실체연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이상 개별자에 대한 『범주론』식의 “첫째 실체”라는 표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이 표현에 상응하는 생각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⁴¹⁾ 『범주론』으로부터 계속되는 이러한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사실상 이미 『형이상학』 Z의 실체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장에서 자립성을 나타내는 “분리된/될 수 있는 것”(to chōriston)이라는 표현과 함께 “어떤 이것”이라는 표현이 실체의 주요규정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얼마간 시사되며,⁴²⁾ 그것은 더 나아가 『형이상학』 Z 밖의 다른 몇몇 중요한 『형이상학』 구절들에서도 확인된다. Z 13의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는 B 6

41) 본고의 이러한 견해는 조대호 2007 b, pp. 81f에서 다른 각도의 설명을 통해 지지된다. 여기에서 『범주론』과 『형이상학』 양자에 있어 “첫째 실체”라는 개념의 상이한 쓰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장되기를: “『범주론』과 『형이상학』은 물론 자신의 저술 어디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인 실체가 가장 엄밀한 뜻에서의 실체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p. 81)

42) 1029a 27-28.

의 마지막 아포리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만을 실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주어진 개별자의 원리가 개별자인가 아니면 보편자인가의 문제를 숙고하고 있으며,⁴³⁾ 또한 바로 이 아포리아를 보다 깊게 다루면서 개별주의적 원리 이해 속에서 그 해결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M 10의 논의에서 그는 단적으로 오직 개별자만이 주어진 실체임을 분명히 밝힌다.⁴⁴⁾ 이와 같이 연관된 주제를 다루는 『형이상학』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확인되는 개별주의적 실체관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껏 주목된 Z 13의 논의 속에서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를 비판하는 가운데 일관되게 견지했으며, 또한 그것을 그곳의 첫 번째 논의 이래 작용하던 ‘원리로서의 실체의 고유성’에 따른 논변에 의거하여 주어진 실체의 원리로서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까지 심화시켰다. 이렇게 하여 그는 그곳에서 주어진 실체의 자격을 오직 개별자에만 인정하는 가운데 이 주어진 실체의 원리로서의 실체의 자격마저도 오직 개별자만이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서두에서 거론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본질로서의 형상에 대한 보편주의적 해석은 지지될 수 없는 견해임에 분명하다. 이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하나의 개별적 실체의 실체인 그것의 본질로서의 형상이 일종의 종적 보편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Z 13에서 지금껏 언급된 개별주의적 실체관에 따라 종적 보편자를 포함한 모든 보편자가 주어진 실체로도 이 실체의 실체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결론적 논지로 제시했다.⁴⁵⁾

43) 1003a 5-17. 특히 1003a 8-9 참조.

44) 1086b 16-19.

45) 현재 비판되고 있는 유와 종의 보편자 이외에도, 이른바 “최고의 보편자”로 간주되는 ‘하나’(to hen)와 ‘존재자’(to on)가 Z 16에서, Z 13의 첫 논의 이래 작용하던 ‘원리로서의 실체의 고유성’에 따른 논변의 새로운 적용에 의해, “하나”와 “존재자”라고 불리는 모든 개별자들 중 어떤 것의 실체도 아닌 것으로 비판된다.

V. 개별적 실체의 정의 문제

Z 13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그런데 그곳의 모든 논의를 마치는 부분에서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038b 34ff에서 결론적 논지를 개진한 이후 Z 13의 나머지 부분에서 두 가지 마무리 논의들을 제공하는데, 그는 우선 1039a 3ff에서 이 결론적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어진 개별적 실체가 보편자를 자신을 구성하는 존재의 원리로서 가질 수 없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이려고 의도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논변을 제공한다: 주어진 개별적 실체는 그것에 내재하는 현실적 실체들로 가정된 한에서의 보편자들로 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 실체들은 서로 분리된 사물들이기에 서로 함께 하나의 단일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⁴⁶⁾ 이 논변이 보이려고 의도하는 논점, 즉 주어진 개별적 실체가 보편자를 자신을 구성하는 존재의 원리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위에서 거론된 1038b 23ff의 논변에 의해 다음과 같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된 논점이기도 하다: 보편자는 ‘어떤 이것’이 아니라 ‘그러그러한 것’이기에 ‘어떤 이것’으로서의 실체를 구성하는 존재의 원리일 수 없다. 이에 그는 Z 13의 마지막 부분인 1039a 14-23에서 주어진 개별적 실체가 보편자를 자신을 이루는 존재의 원리로 가질 수 없음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 두 논변의 귀결로서 개별적 실체에 관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46) 이 논변에 해당되는 본문 중 그 주요부에 해당되는 전반부를 여기에 인용한다: “이 점 [즉, 선행하는 부분에서 언급된 결론적 논점] 은 또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아도 명백하다. 말하자면, 실체가 [그 안에] 현실적 상태로 (entelecheiai) 내재하는 실체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현실적 상태로 있는 둘은 결코 현실적 상태의 하나가 되지 않고, 가능성 상태의 둘이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가 되겠기 때문이다. (예컨대, 두 배 길이의 선은 [그 안에] 가능성 상태로 존재하는 두 반선들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현실적 상태는 그 반선들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가 하나라면, 그것은 [현실적 상태로] 내재하는 실체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귀결은 한 가지 어려움을 수반한다. 말하자면 보편자가 ‘어떤 이것’이 아니라 ‘그러그러한 것’을 나타내기에 어떤 실체도 보편자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어떤 실체도 현실적 상태로 존재하는 실체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일 수 없다면, 모든 실체는 비복합체일 것이고, 따라서 어떤 실체에 대해서도 정식(logos)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horos)가 오로지 혹은 최우선적으로 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며 또한 오래전에 [우리에 의해] 언급된 바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정의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의가 있을 수 없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견지에서는 그것에 [sc. 실체에] 대해 정의가 있을 것이고, 다른 견지에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바는 뒤에 이루어질 논의들에서 더 분명해질 것이다.

조금 전에 언급되었듯이, 현재 인용된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행하는 두 논의의 귀결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논의에 중대한 문제를 수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의 논의가 주어진 실체의 지위에 합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가 정의될 수 없으리라는 문제이다. 한 사물에 대한 정의는 그에게 있어 해당되는 유와 종차의 결합에 의해 주어지거니와,⁴⁷⁾ 그는 여기에서 정의가 주어지는 이러한 방식이 정의되는 사물에 있어서의 상응하는 결합을 전제함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⁸⁾ 따라서 선행하는 두 논의의 귀결로서 주어진 개별적 실체가 보편자로—이것이 현실적 실체로 가정되든, 사실상 실체가 아니라 ‘그러그러한 것’이든—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의에 상응하는 유와 종차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하기에,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렇게 주어진 실체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없다면, 그 어떤 존재자의 정의도 있을 수 없기에,⁴⁹⁾ 현재의 어려움은 그 해결의 길이 없다면 실체를 근간으로 하는

47) Z 12와 H 6 참조.

48) 방금 인용된 Z 13의 마지막 논의 중 1039b 17-19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어진 실체가 보편자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로부터 바로 그것의 정의 불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방금 언급된 조건이 자명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학문적 인식의 불가능성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수반하며 Z 13을 통해 견지된 그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에서 사실상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어진 개별적 실체가 어떤 견지에서는 정의될 수 있음 또한 시사하며, 그것의 정의 불가능성과 더불어 그것의 정의 가능성에 대해 차후의 논의들을 통해 보다 분명한 설명을 제공할 것도 약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Z 13의 논의 전체를 일관하는 그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사실상 개별적 실체의 정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의해 위협받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별적 실체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가 차후의 논의들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설명들 중 어떤 견지에서 개별적 실체가 정의될 수 없는가에 대한 설명은 뒤따르는 Z 15에서 ‘개별자의 정의 불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제공된다. 말하자면, 그곳에서 그는 하나의 개별자가 그 개별자에 고유한 정의를 가질 수 없음을 보이려는 취지의 다양한 논변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어떤 견지에서 개별적 실체가 정의될 수 있는지는 그 어떤 뒤따르는 논의에 의해서도 분명히 설명되지 않는다.⁵⁰⁾ 이렇게 하여 Z 13

49)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수적 존재자들 같은 비실체적 사물들은 오직 그것들의 기체를 이루는 실체의 개념이 전제되는 한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Z 5, 1031a 1ff 참조.

50) 많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은 이 후자에 대한 설명이 『형이상학』의 다음권인 H의 6장을 통해 주어진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Bonitz 1848-1849, Vol. 2, p. 349, Ross 1953, Vol. 2, p. 211, Frede-Patzig 1988, Vol. 2, p. 263, Seidl 1989/1991, Vol. 2, pp. 433-434.) 그러나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정의 대상의 단일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한다: 하나의 종에 대한 정의에서 해당되는 유와 종차는, 마치 하나의 실체적 단일체를 이루는 질료와 형상처럼, 그 종을 하나의 실체적 단일체로 구성한다. (특히 1045a 23-35를 보라. 유사한 논점이 사실상 이미 Z 12에서 설명된다: 1038a 5ff를 보라.) 본고가 보기에, 이 설명은 Z 13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따르면 ‘어떤 이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그러한 것’으로서 ‘무엇임’이라는 자격에 따라 정의의 차원에서 실체로 간주되는 하나의 종이 마찬가지로 단지 ‘그러그러한 것’들일 따름인 유와 종차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기여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어떤 이것’으로서의 하나의 개별적 실체가 해당되는 유

의 마지막 부분은 그곳에 일관되는 개별주의적 실체관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아직 그 해결의 방식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 이 장애를 뚫고 나가 Z 13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을 보다 나은 통찰 속에서 조망할 길은 없는가? 이를 위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에 의해 현재의 문제가 어떤 견지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이 시사된 이상, 우리는 다른 곳에서의 그의 생각들에 의지하여 그가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개별적 실체의 정의가 어떤 것일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연대기적으로 『형이상학』 Z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형이상학』 M 10에서⁵¹⁾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에서도 간략히 언급되었듯이, 우리의 Z 13의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는, 주어진 개별자의 원리가 개별자인지 보편자인지에 대한 『형이상학』 B 6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다 깊이 숙고하는 가운데 개별주의적 원리 이해 속에서 그 해결을 찾으려고 시도한다.⁵²⁾ 이 시도 속에서 그는 학문적 인식이 보편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의 학문론의 기본적인 견해에 따라⁵³⁾ 개별적 원리가 학문적으로 인식될 수 없으리라는 어려움을 의식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그럼에도 학문적 인식에는 사실상 보편적인 것에 대한 것과 개별적인 것에 대한 것의 두 종류가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난다. 이러

와 종차로 이루어진다는 그 어떤 가능성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Z 13의 선행하는 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분명하게 부인되었다. 방금 언급된 H 6의 논의는 또한 개별적 실체가 스스로 ‘어떤 이것’으로서 해당되는 유와 종차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어쨌든 다른 어떤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바로 이 후자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전에 주목된 Z 13의 마지막 논의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차후에 분명한 형태로 제공하리라고 약속한 설명이다.

51) Düring 1966, pp. 50-52.

52) 특히 1087a 4-25를 보라.

53) 정의를 포함한 학문적 인식이 보편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은 『형이상학』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자명한 논제로서 기능하는 그의 학문론의 기본적인 견해이다: 『형이상학』 B 6, 1003a 14ff, Z 10, 1035b 34f, Z 11, 1036a 28f를 보라. 또한 『분석론 후서』 A 31, 87b 37ff를 참조하라.

는 가운데 그는 개별적인 것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사례를 통해 시사하거나, 하나의 특정한 색 조각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이 색임을 인지하는 경우처럼 하나의 개별자에 대한 지각 중에 그것의 보편적 정체성을 인지하는 경험이 그 사례이다. 물론 이러한 시사는 충분한 설명이라고 간주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자의 보편적 정체성에 대한 인지를 넘어 그것에 예컨대 정의적 규정과 같은 학문적 규정이 귀속되는 방식까지를 시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최소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별자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그것의 보편적 정체성의 인지와 더불어 생겨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챌 수 있으며, 우리는 또한 이를 보충하여 그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을 개별자에 대한 학문적 인식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하나의 개별자는 그것이 지각되는 중에 동시에 인지되는 그것의 보편적 정체성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편자에 대한 학문적 인식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식된다. 예컨대 한 개별적 삼각형은 그것에 대한 지각 중에 그것이 삼각형임이 인지됨과 동시에 삼각형이라는 보편자에 주어지는 학문적 규정, 예컨대 세 각의 합이 두 직각이라는 규정을 자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갖는다. 이러한 우리의 추측은 다른 곳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로부터 얼마간 확증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추측한 이 경우를 그는 실제로 『분석론 후서』에서 개별자에 특유한 인식의 방식이라고 분명히 설명한다. 『분석론 후서』 A 1, 71a 17-24에서 그가 말하기를:

어떤 것들을 이전에 인식하고 있으면서 또한 다른 것들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얻음으로써 인식을 갖는 일이 가능하다; 예컨대 이미 인식된 보편자 아래에 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누군가는] 모든 삼각형이 두 직각과 같은 크기의 각을 가짐을 이전에 인식했다: [그는] 반원 속에 있는 이것이 삼각형임을 동시에 결론으로 인도되면서 인식했다. (어떤 사물들의 경우에 인식의 습득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 이미 개별자들에 속하며 어떤 기체에 대해 서술되지 않는 모든 것들의 경우에.)⁵⁴⁾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인식된 보편자 아래에 드는 모든 것들”이자 “어떤 기체에 대해 서술되지 않는 모든 것들”로서의 “개별자들”에 특유한 인식의 방식을 설명하는데, 그는 이것을 1) 해당되는 보편자에 대한 인식이—예컨대, 모든 삼각형은 두 직각과 같은 세 각의 합을 갖는다는 인식이—이미 주어져 있는 한에서, 2) 어떤 개별적 사물을 바로 이 보편자 아래에 드는 것으로—예컨대, 특정 장소에 있는 한 개별적 사물을 삼각형으로—인지함과 동시에 3) 결론으로 인도되는—즉, 특정 장소에 있는 이 개별적 사물이 두 직각과 같은 세 각의 합을 갖는다는 추론에 이르는—3중적 인식과정에 의해 예시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상황을 개별자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분석론 후서』 A 1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형이상학』 M 10에서 불충분하게나마 시사하고 있기에, 우리는 Z 13의 마지막에 개별자의 정의 가능성으로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설명이 하나의 개별자가 그것의 종적 정체성에 따라 정의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정의는 일반적으로 유와 종차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정식(logos)을 통해 규정되는 하나의 종적인 것을 대상으로 갖는데,⁵⁴⁾ 이를 전제로 할 때 하나의 개별자가 그것의 종적 정체성에 대해 인지될 수 있는 한에서 그것이 자기가 속하는 종에 대해 주어지는 정의적 규정을 자기에 적용되는 정의적 규정으로 갖는 것이 현재 확인된 개별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개별자의 정의 가능성이다. 이것이 Z 13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M 10의 설명을 포함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설명들로부터 도출된 것이기에 아주 그럴듯하게 Z 13의 마지막에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개별자의 정의 가능성일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Z 13의 마지막에 그 해결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개별적 실체의 정의 불가능성 문제 아래에서 불완전하게 조망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이 그의 실체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생각

54) 이 인용문에서 “동시에 결론으로 인도되면서”로 번역된 “hama epagomenos”의 해석에 관해서는 Ross의 주석 참조 (1949. p. 506).

55) Z 12와 H 6 참조.

으로서 존립하는 방식을 보완된 통찰 속에서 헤아려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논점들 속에서 조망된다: 오직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만이 주어진 실체이며, 이것은 자신에 고유하게 귀속되는 개별적인 어떤 것을 자신의 실체로서 갖거니와, 이와 동시에 자신의 종적 정체성에 따라 정의될 수 있음으로 하여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학문적 인식의 기반이 된다. 이 중에서 마지막 논점은 그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을 보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위에서 주목한 ‘무엇임’으로서의 종류의 보편자가 정의의 차원에 존립하는 실체로서 궁극적 의미의 실체인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와 나란히 실체라는 자격을 갖고 범주론적 실체론이라는 그의 존재론 속에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무엇임’으로서의 종류의 보편자는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가 정의되기 위해 매개항으로서 요구되는 개념적 존재자로서 궁극적 의미의 실체인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에 대한 학문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학문적 사유 속에 이에 대한 개념적 상응자로서 존재하는 한에서 실체라고 불리는 이차적 의미의 실체이다.⁵⁶⁾ 이미 『범주론』에서 “둘째 실체”라고 불리던 이러한 이차적 의미의 실체인 ‘무엇임’으로서의 종류의 보편자는 학문적 인식의 견지에서는 오히려 궁극적 의미의 실체인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에 대해 우위를 갖는다; 바로 전자의 매개에 의해 비로소 후자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론적 견지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된 바에 따라, 궁극적 의미의 실체인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가 ‘무엇임’으로서의 종류의 보편자에 대해 우위를 갖는다. 이러한 존재론적 견지에서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는 여전히 범주론적 의미에서 첫째 실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Z 13의 논의 전체를 일관하며 심화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의 근간을 이룬다.

56) 이와 유사한 견해로서 Irwin 1988, pp. 267-269 참조.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형이상학』 Z 13에서 수행된 보편자의 실체로서의 지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논의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곳의 주요논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함과 더불어 그곳의 주요논지에 대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로 기여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들을 숙고해 보았다. 그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어떤 이것”이라고 불리는 개별자만을 주어진 실체로 인정하는 가운데 이것의 실체인 원리적 의미의 실체로서도 오직 이것에 고유하게 귀속되는 개별적인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유와 종의 단계에 있는 모든 보편자를 지금 언급된 두 가지 의미의 실체로서의 지위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그곳의 주요논지에는 오직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만이 하나의 주어진 실체의 지위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일관된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 생각은 사실상 그의 『범주론』에서의 ‘첫째 실체’ 이해에 연속되는 것으로서 오직 “어떤 이것”이라고 불리는 개별자만이 단적으로 근본적인 실체로서 엄밀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체로 간주된다는 그의 실체론 전체에 일관되는 근간논제를 이룬다. 바로 이러한 근간논제에 따라 그는 그곳에서, 범주론적 견지에서 다른 한편으로 “무엇임”이라고 불리며 개별적 실체의 보편적 정체성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실체로 인정되는 유와 종의 보편자를 ‘어떤 이것’으로서의 개별자에 귀속되는 엄밀하고 궁극적인 의미의 실체의 지위로부터 제외시킨다. 이렇게 작용하는 그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Z 13의 논의로부터 귀결되는 개별적 실체의 정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문제는 사실상 어떤 견지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가 비록 Z 13에서 그 해결의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으나, 다른 곳들에 나타나는 그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 실체는 자신의 종적 종체성에 따라 규정됨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Z 13에서 작용하는 그의 개별주의적 실체관은 그 본래의 존재론적 견지에서 확고할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견

지에서도 합당한 기반을 갖는 그의 실체론 전체의 근간논제로서 조망된다.

투 고 일: 2010. 12. 21.
심사완료일: 2011. 01. 18.
게재확정일: 2011. 01. 18.

권혁성
서울대학교

참고문헌

I. Aristoteles의 원전; 이에 대한 번역과 주석

Categoriae (『범주론』):

Ackrill, J. L., *Aristotle's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trans. with notes, Oxford, 1963.

Minio-Paluello, L., ed. *Aristotelis Categoriae et Liber de Interpretatione*, Oxford, 1949.

Oehler, K., *Aristoteles. Kategorien*, übersetzt und erläutert, Berlin, 1986.

Analytica Posteriora (『분석론 후서』):

Barnes, J., *Aristotle's Posterior Analytics*, translated with notes, Oxford, 1975.

Detel, W.,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übersetzt und erläutert, in *Aristoteles Werke in deutscher Übersetzung*, Bd.3/II1-2, Berlin, 1993.

Ross, W. D., ed. *Aristotle's Prior and Posterior Analytics: 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xford, 1949.

Sophistici Elenchi (『소피스트적 논박』):

Ross, W. D., ed. *Aristotelis Topica et Sophistici Elenchi*, Oxford, 1958.

Zekl, H. G., ed., *Aristoteles. Topik-Über die sophistischen Widerlegungsschlüsse*, übersetzt, mit Einleitung und Anmerkungen versehen, Darmstadt, 1997.

Metaphysica (『형이상학』):

김진성,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역주, 이제이북스, 2007.

조대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역해, 문예출판사, 2005.

- Bonitz, H., ed., *Aristotelis Metaphysica*, Bonn, 1848-1849.
- Bostock, D., *Aristotle. Metaphysics. Books Z and H*, Oxford, 1994.
- Frede, M. -Patzig, G., *Aristoteles „Metaphysik Z“: Text, Übersetzung und Kommentar*, München, 1988.
- Jaeger, W., ed. *Aristotelis Metaphysica*, Oxford, 1957.
- Ross, W. D., ed. *Aristotle's Metaphysics. 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xford, 1953.
- _____, *Metaphysica*, translated into English, Oxford, 1963.
- Seidl, H., *Aristoteles' Metaphysik*, mit Einleitung und Kommentar, Neubearbeitung der Übersetzung von H. Bonitz und Griechischer Text in der Edition von W. Christ, Hamburg, 1989 & 1991.

II. 여타의 원전

- Platon, *Parmenides*, in *Platonis Opera*, ed. J. Burnet, Vol. 2, Oxford, 1953.

III. 주석 이외의 2차 문헌

- 권혁성,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가 갖는 세 가지 주요 표징들』, 『철학사상』 32, 2009.
- _____,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연구에 나타난 본질: 개별자와 종 양자에 있어 로고스와 존재방식의 양 국면에 따라 파악되는 본질』, 『서양고전학연구』 41, 2010.
- 조대호, 『형상의 개별성과 보편성: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이론에 대한 개체주의적 접근』, 『철학연구』 78, 2007 (a).
- _____, 『아리스토텔레스 실체론의 지형도』, 『화이트헤드연구』 14, 2007 (b).
- Albritton, R., “Forms of Particular Substances in Aristotle's *Metaphysics*”, *The Journal of Philosophy* 54, 1957.
- Düring, I., *Aristoteles: Darstellung und Interpretation seines Denkens*,

- Heidelberg, 1966.
- Frede, M., "Individuals in Aristotle", in M. Frede,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Minnesota, 1987 (a).
- _____, "Substance in Aristotle's Metaphysics", in M. Frede,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Minnesota, 1987 (b).
- Furth, M., *Substance, Form and Psyche: an Aristotelean Metaphys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Graham, D. W., *Aristotle's Two Systems*, Oxford: Clarendon Press, 1987.
- Hartmann, N., "Zur Lehre vom Eidos bei Platon und Aristoteles", in *Kleinere Schriften II*, Berlin, 1957.
- Irwin, T. H., *Aristotle's First Principles*, Oxford, 1988.
- Lear, J., *Aristotle: The Desire to Understan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8.
- Leshner, J. H., "Aristotle on Form, Substance, and Universals: A Dilemma", *Phronesis* 16, 1971.
- Lloyd, A. C., *Form and Universal in Aristotle*, Liverpool, 1981.
- Loux, M. J., "Form, Species and Predication in Metaphysics Z, H and Θ ", in *Mind* 88, 1979.
- _____, *Primary Ousia: an essay on Aristotle's "Metaphysics" Z and H*, Ithaca & London, 1991.
- Rapp, Ch., "„Kein Allgemeines ist Substanz“ (Z 13, 14-16)", Ch. Rapp, ed. *Aristoteles,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Berlin, 1996.
- Sykes, R. D., "Form in Aristotle: Universal or Particular?", *Philosophy* 50, 1975.
- Tugendhat, E., *TI KATA TINOS: Eine Untersuchung zu Struktur und Ursprung aristotelischer Grundbegriffe*, Freiburg, 1958.
- Witt, Ch., *Substance and Essence in Aristotle: an Interpretation of*

“Metaphysics” VII-IX,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9.

Woods, M. J., “Problems in Metaphysics Z, Chapter 13”, in *Aristotl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 M. E. Moravcsik, London, 1968, pp. 215-238.

_____, “Universals and Particular Forms in Aristotle’s Metaphysics”,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Supplementary Volume: Aristotle and the later Tradition*, 1991, pp. 41-56.

ABSTRACT

Aristotle's Understanding of the Universal
and His Individualist View of Substance
in the *Metaphysics Z 13*

Kwon, Hyeock-Seong

This paper examines Aristotle's criticism of the understanding of the universal as substance and his own view of substance in the *Metaphysics Z 13*. This approach will be taken in contrast to the universalist interpretation of the form, i.e. the essence that is called "the primary substance" in the Aristotelian metaphysics.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form or essence of an individual substance, in his metaphysics, is a specific universal common to every individual substance of the same species. In the Aristotelian metaphysics, the form or essence of a substance is called "substance of" and is a substance in the sense of the principle of the given substance. According to *Metaphysics Z 13*, however, the form or essence of a given substance is that which is peculiar to this given substance. Therefore, that of an individual substance is an individual that is peculiar to this given substance, while every universal at the level of species and genus cannot have this status of substance as the principle of the given substance. In *Metaphysics Z 13*, he also deprives every universal of the status of a given substance, because, he suggests, only an individual as 'a this' has this status. This

individualist view of substance stands in accordance with his understanding of ‘the primary substance’ in *the Categories*, forming the basis of his entire theory of substance, according to which only an individual as ‘a this’ is an absolutely fundamental reality and, therefore, is a substance in the strict and ultimate sense. Accordingly, in *Metaphysics Z 13* he deprives every universal of the status of substance in this strict and ultimate sens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universal is also deprived of the status of substance in the sense of ‘what-something-is’. The universal has this status according to the other view within the categorical understanding of substance and is the case, for example, in the preceding chapters of *Metaphysics Z 13*. At the end of *Metaphysics Z 13*, Aristotle’s individualist view of substance meet with the difficulty of the indefinability of individual substance. However, according to him, this is soluble in a way. Although in *Metaphysics Z 13* he gives no explanation about the way of solution, in the light of his thoughts on related issues expressed in other texts the problem can be solved in the way that individual substance can be defined in terms of its specific identity. Therefore, his individualist view of substance is considered a basic thesis in his substance theory that has a solid foundation in the ontological as well as the epistemological respect.

Keywords: Universal, Substance, Categorical Understanding of Substance, Individualist View of Substance